

# 여수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선정

### 수요자 중심 환경조성·고객만족 민원서비스로 재인증 "앞으로도 양질의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

여수시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최초 인증 이후 연이은 재 인증으로 그간 여수시가 수요자 중심의 시민 편의의 민원환경을 조성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행복민원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민원실 내·외부 환경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객 만족도조사 등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결정된다.

여수시는 ▲화요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본 청사로

비와 주차장 환경개선 ▲석면 건축자재 정비 ▲웨어러블 캠, 휴대용 녹음기록장치 등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민원창구 투명 안전가림막 설치 등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집중해왔다.

더불어 민원처리 공간과 분리된 카페형 분위기의 고객쉼터 마련, 친환경 실내조경 설치, 건강관리코너, 북카페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고객 도움벨, 민원실 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재 인증에 따라 시는 1일 정기명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을 갖고 시민중심 시정구현을 다시금 다짐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민중심의 시정방침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전남도 내 최고"

보성군은 2024년 본예산안 증가율이 6.11%로 전남도 22개 시군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보성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31억 원(13.85%) 증가한 2726억 원을 확보, 본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증가 국·도비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사업 658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44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1억 원, 대규모 산림복원 및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4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9억 원, 벌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3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에 60억 원 등이다.

김철우 군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지방재정 전망도 좋지 않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농협, 전국 최초 청년 이사제 도입 정관 개정 의결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후)은 11월 30일 개최된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정부의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반영한 청년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순천농협 정관 개정 의안이 의결되었다.

청년이사제는 순천농협의 만45세미만의 조합원에게 비상임이사 1명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최남후 조합장은 도입이유로 "농협 경영 참여를 통해 청년조합원의 농업·농촌·농협의 이해와 사업활력화를 위해서 청년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관 개정된 내용을 오는 1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신청 예정으로 승인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되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남후 조합장은 "청년조합원의 의견을 농협경영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시 "겨울철 승강장 따뜻하게 이용하세요"

### 버스 승강장 총 203개소에 발열의자·바람막이 설치



순천시는 겨울철 교통약자 및 어르신 등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발열의자와 바람막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현재 순천시 등 버스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과 추위에 취약한 외곽지역의 승강장 등 총 203개소에 발열의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초까지 주민만족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발열의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발열의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동되며 자동 센서를 통해 대기 온도 18도 이하에 작동되어 내부의 탄소 소재 열선이 38℃까지 따뜻해진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약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41개소 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

하여 겨울 한파를 막을 예정이다. 바람막이는 매년 겨울 투명한 비닐 커튼으로 제작 후 승강장에 설치되어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상훈 순천시 교통관리과장은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발열의자와 바람막이가 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버스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화재예방 소방훈련 실시

광양시는 지난 11월30일 시 생활폐기물과 직원과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인 (사)광양자원관리공사 근로자 등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초기대응 및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습득, 대피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심현우 생활폐기물과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고흥군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온 힘

### 사업비 20억 원 투입, 선박 접안시설 20개소 신규 설치



고흥군은 2023년 도·군비 20억 원을 투입해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박 접안과 승·하선 시 어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어업활동 시 수산물의 원활한 운반 등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도양읍, 봉래면 등 10개 읍·면 19개 어항에 20개소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부유식 접안시설인 복합 다기능 부잔교는 해상 위에 부유된 부잔교 및 연결 도로로 구성돼 수심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시설로 여러 선박이 접안할 수 있으며, 승하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 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